

편딩제품 2차례 지연에 대응 미흡... 컨셔널 '소비자 기만'

〈원즈웨이브〉

세 차례 편딩 통해 총 2억 어치 팔아 발송 약속일 지나 '지연' 공지하고 두 차례 더 약속 어긴 후 제품 발송 "중 공장서 하자, 납기일 못 맞춰" 와디즈 "보상금 없고 요청엔 환불" 입점사 관리부실 문제 '도마위'



컨셔널이 와디즈를 통해 판매한 47리터(L)급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 '원즈웨이브 TAC, Aluminum Box'.

누적 회원수만 600만명이 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세차례 편딩을 통해 20만원에 가까운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를 2억원 어치 넘게 판매한 '컨셔널'이 소비자들을 기만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배송 일정이 한참 지나야 '지연 공지'를 하는가하면 결국 또다시 약속한 배송날짜까지 지키지 못하는 등 신뢰가 추락, 고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14%에 가까운 수수료만 챙기고 입점회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와디즈의 행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와디즈에 따르면 유통사 컨셔널(박수형·오수현 대표)은 47리터(L)급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 '원즈웨이브 TAC, Aluminum Box'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 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했다.

색깔별 가격은 카키·블랙 제품이 19

만9000원, 실버가 17만9000원이다. 배송비 5000원을 포함하면 20만원(카키·블랙)이 넘는 고가다.

이들 제품은 3차 앵콜을 통해 266명이 편딩에 참여, 판매금액만 총 4753만 8000원을 달성했다. 1인당 약 17만8700원을 쓴 꼴이다.

유통을 맡은 컨셔널측은 편딩을 하면서 제품 발송 시작일을 6월 11부터 20일까지라고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컨셔널은 발송일이 한참 지난 6월 17일 저녁 늦게서야 '지연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회사측은 공지를 통해 "단순한 알루미늄박스가 아니라 타공판, 다리, 확장판 등 여러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부품만 납품이 지연되어도 제품 전체가 지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28일 혹은 7월 1일 발송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제품 수량에 맞춰 캠핑 날짜 등을 잡은 고객들은 화가 났다.

서포터인 최모씨는 "편딩을 세차례나 성공했다고 배가 많이 부르신거봐요. 발송일자를 반이나 까먹고는 선적에 문제가 있다? 중국산을 한 달 넘게 기다리면서 아무소식도 없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

가... 좀 너무 하네요"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컨셔널은 다시 한번 약속한 배송 날짜까지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이나 이달 1일 발송한다고 공지했던 회사는 약속한 마지막 날인 1일 저녁 늦게서야 다시 "3차 편딩 발송 일정 또 지연되었습니다. 내일(2일) 컨테이너 들어오는대로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향후 공장 관리 더욱 철저히(오타)하겠습니다"라고 추가 공지했다.

서포터들은 "진짜 죄송하나요..", "뭐하는 거지...???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반응 등을 늘어났다.

발송 약속(6월 11~20일)→지연 공지(6월 17일 저녁)→발송 약속(6월 28일 또는 7월 1일)→지연 공지(1일 저녁)→발송 약속(2일) 등을 반복하며 수차례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컨셔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 닝보에 공장이 있는데 제조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납기를 맞추 수 없었고 약속했던 배송 날짜도 지킬 수 없었다"면서 "검수를 끝내고 한국에 제품이 도착해 오늘(2일) 고객들에게 발송해 하루, 이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드릴 예정이고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발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컨셔널은 자동차부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자상거래, 여행/취미, 모빌리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이슈는 배송 지연에 관한 것으로 지연보상금은 없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에게는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환불을 해드릴 계획"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뢰안전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편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와디즈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매출(영업수익)은 2022년 342억원에서 지난해 397억원으로 16.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38억원에서 -173억원으로 48.8% 줄었다.

현재 와디즈는 창업자인 신혜성 대표가 39.2%,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25.9%, 기타가 3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와디즈의 월간 방문자수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글로벌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

김앤장 등 로펌 4곳과 업무협약
일본·베트남 등 9개국 지원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형 로펌 4곳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세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시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로펌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꾸렸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열린 'AX브릿지위원회' 출범 포럼에서 (왼쪽 5번째부터)벤처기업협회 성장업 회장, AX브릿지위원회 이주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AI분야 기업 성장 돕는다

'2024 AX브릿지위원회' 본격 출범
벤처 기업의 AI전환 촉진 활동 계획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기 위해 '2024 AX브릿지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벤처협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AX브릿지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AX(AI transformation)'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넘어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는 생성형 AI, 초거대 AI,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등 IT 기반 자체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AI가 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됐다.

벤처협회 AI브릿지위원회는 앞으로 ▲AI 분야 벤처 기업들의 성장 지원 ▲벤처 기업의 AI전환 촉진 ▲협회의 장점인 정책 제안 기능을 활용한 AI산업 발전 지원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위원장은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가 맡고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 고피자 임재원 대표, 휘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모비젠 김태수 대표, 에이버츄얼 김태준 대표, 세븐미마켓 주명규 대표, 스피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 엑스아이지 황성재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성장업 벤처협회장은 "협회는 벤처기업의 AX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이주완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결속과 단합으로 AX브릿지위원회와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X브릿지위원회는 아울러 ▲다양한 테크 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연결을 통한 비용 절감 지원 ▲기업 내의 업종 전문가와 AI기술전문인력 간의 가교로 인력 부분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통한 정책지원을 벤처기업들의 AX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휴롬, 네이버 랭킹쇼핑서 파격할인

음식물처리기·착즙기 등 판매

휴롬이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네이버 랭킹쇼핑'에 참여해 음식물처리기, 착즙기 등 자사의 대표 제품들을 파격적으로 판매한다.

2일 휴롬에 따르면 네이버 랭킹쇼핑은 올해 네이버에서 첫 선을 보이는 대형 기획전으로, 쇼핑 카테고리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 3곳이 참여해 풍성한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다.

주방가전 카테고리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휴롬은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신제품 음식물처리기 2세대 구매 시 최대 14만5000원 할인 혜택과 함께 5만8000원 상당의 필터 2개 세트를 구매자 전체에게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이와 함께 착즙기 등 전 제품을 최대 41%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H410 착즙기 구매 고객에게는 3.2kg 멜론을 전원 제공한다.

여기에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카드사 7% 할인혜택 및 휴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알림바기 설정 시 5000원 중복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음식물처리기 2세대, H410 구매 확정 후 포토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 추가 적립 등 풍성한 혜택도 준다. /김승호 기자